

[바둑]

신안태평천일엽 강동윤 광주 KIXX 이창호 주장에

■KB 국민은행 2009 한국바둑리그 선수 및 팀명단

팀명	Kixx (광주)	신안 태평 천일엽 (전남)	하이트 진로 (서울)	영남일보 (대구)	티브로드 (이북5도)	바투 (인천)	한계임 (경기)
감독	양재호	이홍열	강 훈	최규병	서봉수	김영환	차민수
1지명	이창호	강동윤	최철현	박영훈	목진석	원성진	윤준상
2지명	박정환	박정상	한상훈	김윤택	조한성	허영호	이영구
3지명	홍인표	이일도	조훈현	김지석	인조영	백홍석	
4지명	박시열	이정우	이춘규	김형우	류동완	박승화	김주호
5지명	강창배	이태현	진동규	염정훈	김현섭	윤성현	김미리
자율 지명	고근태	안형준	안성준	유창혁	최영훈	김승재	한유규

2009 한국바둑리그를 달굴 7개팀의 얼굴이 모두 드러났다. 한국기원은 최근 바둑리그 선수지명식이 마쳤다.

지난달 사전지명식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예선전을 거친 한국바둑리그는 마지막 출정준비인 선수지명식까지 지난 6일 마치면서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하게 됐다.

선수선발식은 총28명의 선수들을 각 팀 감독들이 드래프트 순번에 따라 지명했다.

투쟁을 연 결과 한국랭킹 상위권 기사들은 대부분 1지명 내지 2지명으로 뽑혔다. 3지명부터 각 팀 감독들의 눈치보기 작전이 불꽃을 튀었는데 대부분 2008년 상위 성적 기사들을 선호해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모습이었다.

신안 태평천일엽은 한국랭킹 2위

강동윤 선수를 주장으로 낙찰해 이세돌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달렸다.

광주 kixx는 박정환 선수를 2지명으로 지목했다. kixx는 십단전 우승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박정환 선수를 한국랭킹 3위 이창호 선수를 보유하고 했다.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리그 2연패를 달성한 영남일보는 2008시즌 우승 주역인 강유택 선수를 다시 뽑았고, 박영훈 선수를 주장으로 영입하면서 리그 3연패에 도전장을 던졌다.

티브로드는 목진석과 조한성까지 주장급 선수들을 2명이나 보유하고 각 팀 감독들의 부러움을 샀다. 서봉수 감독은 "한승이가 군데만 안 간다면 팬층은 전력이야 인정한다"며 말했다.

신생팀인 바투는 가장 안정된 기량으로 손꼽히는 허영호와 주장 원성진, 3강 백홍석 선수까지 강력한 허리



지난 6일 한국기원에서 2009한국바둑리그 선수 지명식이 열렸다. 신안 태평천일엽은 강동윤을, 광주 kixx는 이창호 등을 각각 지명했다.

한국바둑리그 선수 선발식 마쳐...21일 개막전

7개팀 전력 평준화... '홍일점' 김미리 한계임

라인을 구축했다.

한계임은 지난 시즌 MVP 윤준상 선수와 이영구, 홍성지 3인방에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리그 홍일점인 김미리 선수의 활약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창호는 전년도 소속팀이었던 kixx가 우선지명권을 행사함으로써 3년 연속 같은 팀에서 뛰게 됐다. 박영훈은 전년도 우승 팀 영남일보, 최철현은 신생 하이트맥주의 주장에 선발됐다. 티브로드의 선택을 받은 목진

석은 4년 만에 주장으로 돌아왔다. 리그 1라운드 개막전은 오는 21일 오후 7시부터 kixx와 티브로드의 경기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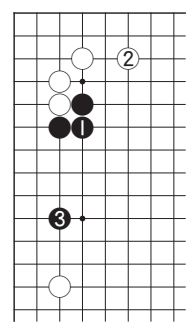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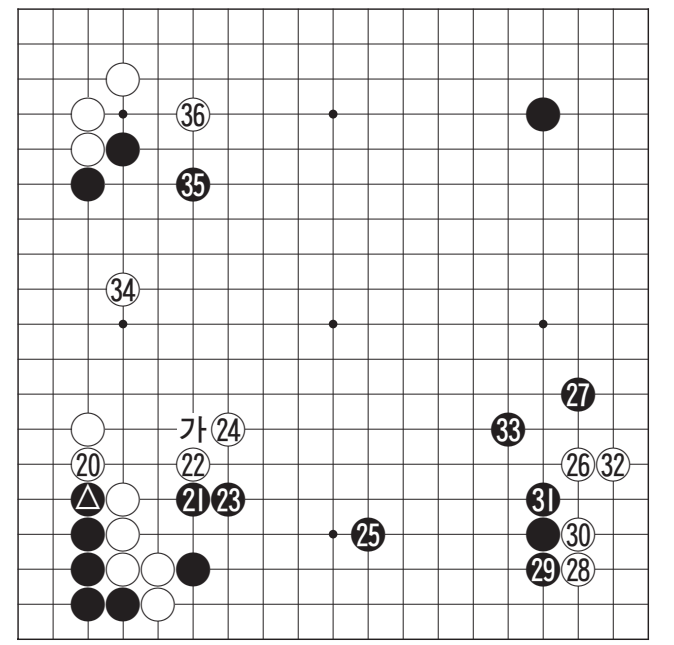
이번 시즌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14라운드로 펼쳐진다. 총 상금 24억원, 매주 목~일요일 저녁 7시와 9시에 더블리그로 진행된다. 7개 팀 중 3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총 상금규모 11억원, 우승 상금은 2억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

제6회 서구구청배 바둑대회

틀에 얽매인 정식

최강부 준결승 2국 2보(20~36)

白 심재욱 6단 黑 기용성 5단



<참고도>

왔으나 흑의 실착을 응징하려면 '참고도1'의 백 1로 짓는 수가 있었다. 그러면 흑은 2로 치받고 4로 끊는 정도인데 5로 늘고 9까지 실리와 두터움을 유지하여 유리한 모습이다.

기용성 5단은 먼저 귀를 짓고 흑 24는 '가'에 느는 것이 정수로 되어 있는데 말이 빠른 수를 좋아하는 심재욱은 오히려 얽은 쪽을 선택한다. 흑 25까지 된 장면에서 관건은 좌변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인데 자신감이 넘치는 심재욱은 백 26으로 먼저 걸쳐 흑의 동태를 살펴 본다. 기용성 5단은 으레 정석대로 흑 27로 협공하고 33까지 후수를 잡았는데 이것이 틀에 얽매인 수로 이수로는 '참고도2'의 흑 1을 선수하고 3까지 재빨리 자리를 잡을 찬스였다. 백 34를 두게 되어서는 백이 주도권을 잡은 형국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제18회 光戶 쥘 직장바둑대회

- 일시 : 2009년 5월 24일(일), 오전 10시
- 장소 : 한국기원 광주지원 (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 문의 : (062)220-0541, (062)675-3448

“세계대회 5관왕 원동력은 자신감”

中 구리 9단 인터뷰

'세계대회 5관왕' 구리 9단의 최근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그는 비씨카드배 우승 후 지난 9일 열린 2009 중국잡조리그 첫 라운드에서 항저우팀의 류싱 7단에 패했으며, 팀역시 1-3으로 졌다.

그는 비씨카드배를 앞두고 후지쯔배 8강전(고노리 9단)과 천원전 도전전기(천야오에 9단)에서 모두 패해 잠시 슬럼프에 빠졌다. 다음의 구리와의 일문일담.

-23세에 처음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3년 사이에 6차례의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그 폭발



력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첫 번째 세계대회 우승이 비교적 어려웠다. 그 후는 비교적 순조로웠던 것 같은데 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생겼기 때문

인 것 같다. 최근 몇 년 전체적인 기세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고, 운도 좋아 더 많이 우승을 할 수 있었다. 내 생각에 나는 시합형 선수인 것 같다.

-2006년 이후 6차례 우승을 차지 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 비결은?

▲비결은 없다. 내 생각에 자신감, 운, 실력 등이 종합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 특히 후반의 몇 차례 우승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전에는 이런 느낌이 없었다. 아마도 내가 이전보다 성숙한 것 같다. <사이버로 제공>

‘조훈현 스승’ 후지사와 별세

호쾌하고 화려한 기풍으로 팬들을 매료시켰던 일본의 후지사와 슈코 9단이 지난 8일, 도쿄 국제병원에서 별세했다.

요코하마에서 태어난 후지사와와는 지난 1948년 창년기사 선수권전, 1957년 수상배 정달전, 1959년 일본기원 제1회 결선전에서 우승했다.

또 1962년 제1기 명인전에서 우승하며 프로바둑 최성상에 올랐다.

'면도날'이란 별명 그대로 날카로운 기풍으로 1960년대 일본바둑을 풍미한 7관왕 사카타 에이오 9단과 최고의 자리를 다



웠다. 이 어 1970년 에 다시 명인에 올랐고 나이 50세를 넘어선 1977년 부터 1982년까지 최고타이틀 기성을 6년 연속 제패했다. 또 '슈코 연구회'를 만들어 요다 노리모토, 다카오 신지 9단 등 젊은 프로들을 발굴했다. '바둑 황제' 조훈현 9단의 실전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오광록기자 kroh@

김지석 14연승 마감 물가정보배 이세돌에 패

14연승을 기록 중이던 김지석 5단이 이세돌 9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지석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5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A조 본선리그에서 이세돌에게 248수 끝에 1집만 차이로 졌다. 2연승을 거둔 이세돌 9단은 일찌감

치 결선 진출을 확정지었으며, 김지석은 홍성지 7단을 이겨야만 결선행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연승상 후보로 손꼽혔던 김지석은 이날 어렵게 패하며 연승행진을 14연승에서 마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군민사실/월별	대포사 010-7570-7525	여파트/빌라	영정빌딩 010-3633-8011	주택/재개발	경에서 010-5878-0005
소세지 대지/건물	대포사	여파트	영정빌딩	주택	경에서
전남도	대포사	여파트	영정빌딩	주택	경에서
전북도	대포사	여파트	영정빌딩	주택	경에서
전라도	대포사	여파트	영정빌딩	주택	경에서
충청도	대포사	여파트	영정빌딩	주택	경에서
경상도	대포사	여파트	영정빌딩	주택	경에서
강원도	대포사	여파트	영정빌딩	주택	경에서
제주도	대포사	여파트	영정빌딩	주택	경에서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3-1140, 5210 번 011-602-2532
(광주은행 신원빌딩, 대인동 소정사건11번)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님으로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본과 엄실본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02)383-5221, 5222 번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600평 건물1,300평(매가 78억) 보증금 37억/월세3,000만원 용지 12억
- 토지500평 건물 1,500평(매가 85억) 보증금 7억/월세 6,000만원 용지 4억

▶ **토지(상무지구 삼일지역)**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834.5㎡(250평) - 매가 1,300만원 (종합소득세와 매가 3% 중산사기과도)
- 833㎡(250평) - 평당 880만원 (미분할 호텔 주변 식당 유류업소 적합)
- 611㎡(185평) - 평당 680만원 (상무우도 병영 주변)

▶ **기타용도**

- (농장) 그린벨트 73,000㎡(222천평) 평당 9만원 (농산물 장기투자용 좋은 곳)
- (장동동)주거지역 3,760㎡(1,140평) 평당 40만원 건설회사 한중사주식

▶ **호텔, 모텔**

- 상무지구 2억 35억 35억 35억 (매가 28억) (2층 유류주점 보증금 3000만원/월 450만원)
- 평당 45억 투자로 월 수 1억 가능한 모텔 및 호텔 운영상당 한영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시길 돕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목장용지급매

위 치: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367, 367-6, 367-9 등 10개번지

목장용지: 12343㎡(3734평)

면적: 2350㎡(약700평), 축사(한우 약 50두 이상 사육가능), 견사 주택(104㎡), 염소막사, 버섯재배사 등

매 도 가: 1억 7천만원(은행대출 1억 포함)

연락처 010-3617-8810